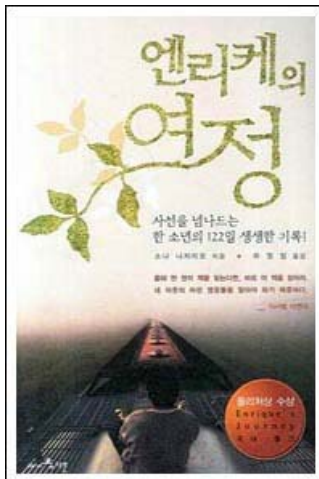


■ 두 개의 국경을 넘어

— 소냐 나자리오, 『엔리케의 여정』

박 은 영



『엔리케의 여정』(하정임 역, 다른, 2007)은 원래 《LA 타임스》지에 기획기사 연재물로 실렸던 것으로, 이 연재물은 폴리처 상, 조지 포크 상, 로버트 케네디 저널리즘 그랑프리 상 등 12개의 상을 수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 책으로 엮었으며, 우리말로 2007년에 번역되었다.

20년 이상 빈곤, 이민, 마약 등 사회문제에 대한 기사를 써온 저자 소냐 나자리오(Sonia Nazario)는 현대판 이민의 진정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사를 쓰기로 결심한다. 이 작업을 위해 소냐 나자리오는 한 소년이 중앙아메리카에서 출발해 엄마가 있는 미국에 도착까지 밟아야 했던 경로를 직접 체험했다. 이 체험과 소년 인터뷰, 소년을 만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 인터뷰, 미국, 온두라스, 멕시코, 과테말라의 무수한 이주민들, 이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보호소 근무자, 학계 종사자, 의료종사자, 정부관리, 경찰관, 이주민을 보호하는 수녀 및 신부를 망라하는 다양한 인물과의 만남이 『엔리케의 여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의 가치는, 수상 이력이나 수상한 상의 명성에서가 아니

라 저자가 하나의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보여주는 노력과 그 노력의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소냐 나자리오의 작업은 종군기자의 취재과정에 버금갈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게다가 대규모 이주의 근본적 원인을 조망하려고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자가 선택한 주인공은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 출신 소년 엔리케이다.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벌려고 미국으로 간 어머니 라우데스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목숨을 걸고 여행해야 했던 엔리케는 이와 유사한 여행을 해야 하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 아이들이 왜 이토록 위험한 여행을 감행하며, 여행 중 그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런 일들이 무엇에서 비롯되며, 또한 그 여행의 끝에서 기다리는 또 다른 현실은 어떤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작가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아동학대를 피해, 혹은 부모와의 재결합을 위해 매년 이 지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4만 8천명의 불법이주 소년소녀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엔리케는 자신이 5세, 누나 벨키가 7세였을 때, 굶주린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자식들을 뒤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떠난 어머니를 만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11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엔리케는 8번째 걸친 시도 끝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재회한다. 그 과정에서 무장한 갱, 이주민을 갈취하는 경찰, 이들을 적대시하는 주민들, 이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다.

멕시코 남부 국경을 지나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기차로, 이 기차는 ‘철의 애벌레’, ‘죽음의 기차’, ‘순례자의 기차’, ‘사람 잡아먹는 기차’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얻

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운송수단이다. 엔리케의 경험은 주로 이 기차와 철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엔리케는 기차에서 돈을 강탈하려고 하는 이들의 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결과는 참담했는데, 왼쪽 얼굴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눈꺼풀이 손상되어 영원히 눈을 뜰 수 없으며, 척추에는



엔리케의 여정 중에서. 돈 바틀레티의 사진

타박상, 오른쪽 다리에는 조직 손상, 머리에는 상처가 났으며, 윗니 두 개와 아랫니 한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된다. 후에 엔리케는 자신을 습격한 이들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늘날 이주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전세계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주는 핵심어 중에서도 핵심어가 되었다. 특히 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주의 문제는 세계체제라는 틀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세계는 제1세계를 향하는 제3세계의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고,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인간계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일 따름이며, 이주가 야기하는 갈등과 조화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일상이 되어 있다.

미국-멕시코 간의 경계는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경계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이주가 이뤄지고 있다. 경계간의 움직임이 크다는 것은 경계의 이쪽과 저쪽의 경제적 격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94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으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전 국민에게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

그 해에는 1982년에 이어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며, 빈부격차의 극대화와 농업 분야의 타격 등으로 인한 암울한 현실은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으로의 이주가 줄기는커녕 증가추세를 보이며 서치라이트, 순찰차량, 바닥에 깔린 전자 센서, 고공감시, 높은 장벽, 강, 사막, 독사가 기다리는 국경을 건너다 사망하는 이들의 수 역시 줄어들 줄을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입국과 관련된 논의는 멕시코인들의 이주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의 일부는 목숨을 걸고 두 개 이상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 중미인들의 이주가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국을 떠나 미국에 밀입국해 들어가는 인구가 매해 총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미인들의 이주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국경 경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멕시코도 중미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자들 중에는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경을 넘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으며, 멕시코와 중미 통산 170만 명의 불법체류 어린이들이 미국 내에 존재한다. 엔리케나 혹은 『엔리케의 여정』과 유사해서 자주 언급되는 영화 <같은 달 아래>(La misma luna)의 카를리토와 같은 어린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 이야기가 드라마화 된 이야기들보다 더 극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같은 달 아래>의 경우 밀입국 어린이의 주관적 시선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는 하나 해피엔딩을 위해 현실의 중요한 부분이 제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엔리케의 실제 여정은 중미에서 여러 개의 국경을 넘

어 미국에 도달하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더 큰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이주의 수치적 현실보다 내면적 현실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 내에서 이러한 이주의 거대한 물결은 많은 유사성을 노정하고 있고, 엔리케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지역을 벗어나 이주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논의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엔리케의 이야기를 전 세계 다른 이주자의 이야기와 차별화된 이야기로 만드는 중요한 차이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특수한 관계이다. 가령,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이 자국 국민을 먹여 살리기 힘든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멕시코와 중미인들의 이주를 꺼려하는 미국이 바로 이주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국경을 여닫아 왔는데,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야말로 이주자의 물결을 불러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최근 미국의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집안의 청소부로 장기간 고용해온 사실이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국토안보부는 다름 아닌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담당하는 곳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용한 것이 라곤 하지만 이미 이런 촌극 자체가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외국인 노동력이 미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례라는 점이 중요하다.

세르히오 아라우(Sergio Arau) 감독의 영화 <멕시코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Mexican)가 이주자들이 미국 내에서 떠맡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이주자 문제는 적당한 균

형을 잡는 일에 실패하는 순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다극화 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탄생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 또한 이주자 문제에 대해 그리 쉬운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라티노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태어난 정부이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선뜻 선심을 쓸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제2, 제3의 엔리케의 여정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박은영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
